

영천시, 내년 예산 1조2234억원 편성

12월 16일 시의회 확정
 2022년 본예산 대비 14.3%↑
 지역경제, 미래먹거리 집중투자

영천시 내년 살림살이는 1조 2234억원 규모로 편성해 영천시의회에 넘겼다. 의회는 이달 16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2일 영천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 최우선, 지역 경제 회복, 인구 유입,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 투자 방향으로 올해 본예산 1조700억원보다 14.3%(1534억원) 증가한 1조 2234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21일 영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968억원, 기타특별회계 20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713억원, 기금 235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369억원(26.4%, 265억원 증가)으

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599억원(17.8%, 농업분야 196억원 증가), 일반공공행정분야 743억원(8.3%), 교통 및 물류 분야 676억원(7.5%) 순이다.

역점 시책 추진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영천경마공원 조성 23억원△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135억원△금호·도남 산업단지 조성 73억원△미래차 부품기업 전환 지원 10억원△영천시립박물관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는△영천사랑상품권 발행 51억원△중소기업 육성·지원 47억원△지역공동체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 6억원△완산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48억원△소상공인 지원 17억원△버스, 택시 운영 지원 및 유가보조금 등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96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도시가스 공급 지원 12억원△자양·화북면 지방상수도 공급 53억원△공영주차장 조성 53억원△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4억원△어린이 안전조끼 지급 0.4억원△어린이집 식기도탈케어서비스 확대 지원 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서는△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00억원△영천마늘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8억원△아열대스마트팜단지 조성 20억원△농기계임대사업 32억원△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6억원△마늘공판장 건립 및 마늘기계화지원 27억원△농민수당 83억원△과일통합디자인 포장재 지원에 11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하나님께 영광!
 영천에는 평화!

영천 X-MAS트리문화축제 개막
 영천시청 앞 소공원과 영천시민회관 전정에 27일 높이 10여미터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영천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준비위원회(위원장 장재덕 목사, 영천서문교회)는 이날 오후 6시에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영천-청도)국회의원, 하기태 영천시의회위원장 및 시도의원과 교회 성도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민회관 광장에서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번 축제 예산은 6000만원이다.

이만희 의원, 강경 '국조특위 보이콧' 불사

이상민 파면 철회 요구 없이는
 '국조위 사퇴' 불변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국회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소식과 맞물려서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경북 청

도군 숙원사업인 '마령재 터널' 기공식 참석을 전면 취소하고 이날 오전 긴급 상경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이태원 사고 국회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국민 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이상민 장관 파면 철회 없이는 국조특위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소식에 초 강경 대응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조특위 합의문 인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치정신을 무시한 것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조특위 결과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을 시작도 전에 이상민 장관 파면부터 요구하는 것은 24일 여·야가 합의한 국조특위 자체를 (민주당)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

장지수 기자

신입 및 경력 기자 모집

- 부문 : 취재기자 0명
- 급여 : 최저 250만원 이상
- 나이제한 : 만 50세 이하
-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500자 이내 자기소개서
- 제출처 : 메일 ycn@yctoday.net
- 서류심사 후 별도 면접 통보
-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별도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주)영천신문 / 영천투데이

대구시 통합군부대이전은 **영천이 최적지**입니다. 영천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2022년도 송년의 밤 행사

2022년 12월 20일(화) 17:00 **종친회관**

종친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행사문의 : 사무국장 010-3504-6148)

新羅王孫 萬派一源

宗綱三示	
崇祖 (송조)	조상을 받들자.
愛宗 (애종)	종친을 사랑하자.
育英 (육영)	인재를 기르자.

박씨 영천시 종친회
 종친회장 박주학 사무국장 박순호
 (종친회관 : 경북 영천시 보목2길 3)

‘영천장흥고’ 도자기 재현 기획전 개막... 영천창작스튜디오

영천의 우수 도자기 마을 관광 스토리텔링화 필요성 제기
안민석 교수, "영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갖는 계기 되길"
이상봉 발견자, "부리 마을-‘영천장흥고’ 체험 테마공원 기대"

영천시 고경면 부리에서 발견(본지 15일자 '영천장흥고')된 조선 초 관청 공납 도자기 파편과 관련한 (영천장흥고)재현 기획전이 지난 23일 안민석 교수 주최로 영천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개막돼 28일까지 진행된다.

1390년부터 '영천장흥고' 가마터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재현 기획전에서 안민석 교수는 "'영천장흥고' 2점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번 영천 부리에서의 발견은 이미 역사적 고

장, 김용섭 대구예술대 산학단 교수, 강경중 도예가 등 많은 도자기 및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영천장흥고'를 처음 발견한 이상봉 육군3사관학교 우체국장은 "'영천장흥고'를 영천의 대표 브랜드로 승화해 발견 장소인 '부리마을에 산책로와 도자기 체험 테마공원을 만들어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도자기에 더 탐닉할 수 있는 도자기 체험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천장흥고'는 올해 초부터 이상봉 3사관학교 우체국장이 어릴 때 뛰어 놀던 고향마을 뒷 산(고경면 부리 138번지)에 사금파리(도자기 파편)가 많았던 기억을 더듬어 2년



'영천장흥고'를 처음 발견한 이상봉 국장(왼쪽)과 장흥고 재현 기획전을 개최한 안민석 교수가 최기문(가운데) 영천시장에게 조선백자 재현품을 설명하고 있다.

전 이곳에서 백자와 분청사기 파편을 수집하면서 발견해 경주박물관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장지수 기자

군위군, 초등 3학년(남)에 폭행 당한 담임교사, 병가
"왜? 내 편 안들어주냐" 가해 학생, 항의 후 가격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담임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이 경북 군위에서 발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군위 A초등학교 체육시간에 3학년 B군(남, 9세)이 같은 반 여 담임교사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일이 발생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B군은 지난 24일 4교시(체육)에 공놀이 하다가 같은 반 동급생과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해 이를 말리던 담임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담임 선생에게 "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며 말리는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담임교사 폭행은 B군이 같은 날 동급생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던 교사까지 함께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군교육지원청은 사건 당일 피해 교사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 병가를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A군의 폭행과 관련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급생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추가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별도로 학교폭력 대책심의회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상공회의소, 대구 군부대 유치는 지역발전 핵심 아젠다

"과거 도청유치 실패 경험 교훈 삼아 적극 나서야"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정서진)가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와 관련해 한자리에 모여 유치 결의를 다지고 현안을 논의했다.

상공회의소 위원들은 23일 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군부대 유치는 지역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발전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공인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이날 동참을 결의했다.

또, 군부대가 들어오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경험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장지수 기자



폐기물 2만여톤 비료로 둔갑... 농지 불법매립 일당 20명 검거

폐기물을 퇴비로 속여 농지에 구덩이를 파고 불법으로 2만여톤을 매립해 13억여 원을 챙긴 일당 20명이 검거됐다.

이같은 불법 행위에 조폭·군의 장출신·퇴직 시청 환경국장 등 고위직 퇴직 공무원까지 가담해 민원 해결 또는 법률자문 역할까지 해오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북 군위와 영천, 포항 등지에서 폐기물을 퇴비로 속여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이같은

일당 20여명을 검거해 이 중 폐기물 처리업자 등 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농민들은 폐기물을 퇴비로 알고 돈까지 주고 매입했는데 농작물이 말라 죽는 등 큰 피해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폐기물을 비료로 속여 판 금액은 무려 13억여 원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영천에서 양파와 마늘농사를 짓는 한 농민(55세)은 올 봄 질이 좋은 퇴비를 무료로 준다고 받았는데

데 악취가 풍기는 불량 퇴비를 신청량의 2배이상 갖다 뿌려 농작물 성장기 작황이 늦어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천시의회 의원들에게도 불량 퇴비 사실을 하소연 했는데 알고보니 의원들도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나서기를 꺼려했다"는 것.

또 다른 군위군 한 농민은 17일 오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몰랐다. 퇴비라고 받았는데 알고보니 시커먼 덩어리에서 썩은 냄새와 하수도 찌꺼기 같은 악취가 온 마

을에 진동해 머리가 아프다"면서도 "일부 밭에서는 아예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며 오히려 대책을 반문해 왔다.

영천에서 퇴비라고 받은 또 다른 농민 K씨(64)는 두 달 전에 "농지 성토용으로 흙과 퇴비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25톤 대형 트럭으로 170여대분량(약 4500톤)의 폐기물 썰리지였다"면서 "영천시에 신고 했지만 비료용으로 시료만 채취해 가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청도군 '마령재 터널' 18년만에 첫 삽

경북 청도-대구(현풍) 및 경남 창원 잇는 2.9km 터널길 김하수, "최고 공헌 이만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도군민 최대 숙원인 비슬산 마령재 터널 공사가 첫 염원 18년 만에 28일 오후 풍각면 송서리 503-21(풍각쟁이광장)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대구(현풍)와 청도간 동서 교통 소통이 풀리기까지 총 공사 기간은 5년이 걸릴 예정이다.

마령재 터널은 총 사업비 561억원(국비 296억원, 도비 265억원)으

로 전체 2.9km 공사 구간 중 터널 구간은 1.5km로 계획됐다.

이 터널이 뚫리면 청도읍 풍각리와 현풍 및 대구 간 이동거리가 크게 줄어 약 20분이 단축됨으로써 주민 출·퇴근, 지역 농산물 유통, 관광객 접근성, 경제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하수 청도군

수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및 지역 군·도의원과 각 기관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분위기 속에 열렸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날 기공식 인사에 앞서 "이번 마령재 터널 공사가 기공식을 갖기까지 가장 많이 공을 들인 두 분이 국회와 도정의 숨가쁜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만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두 분께 깊은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마령재터널 공사의 필요성은 2004년 경부고속전철 개통과 함께 문화·관광 수요 급증을 대비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립된 청도군 종합 개발전략이 그 시작이다.

오늘(28일) 기공식까지는 최초 청도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만 18년, 2012년 중앙정부 공식 사업건의 후 10년, 그리고 2016년 8월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후 7년만의 성과다.

이번 기공식은 이만희 의원이 지난해 연말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올해 예산 중 마령재 터널 공사공사비 4억원을 증액시키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장지수 기자

민선2기 영천시체육회장 선거 12월 22일 '박-조' 빅매치 성사될까?

공탁금 1000만원, 회비 3000만원(년)
 박봉규 현 회장 출마 확실, 연임 의지
 조영제 전 영천시의회 의장 출마설 솔솔
 12월2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12월12일~13일
 선거운동=12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박봉규 회장 조영제 전 의장

전국 동시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가 막이 오른 가운데 영천시체육회장 선거에는 현 박봉규 회장과 조영제 전 영천시의회 의장의 경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경북도와 광역 자치단체 체육회장은 12월15일까지, 각 시·군·구 지자체 민간체육회장은 오는 12월 22일(목) 실시된다.

영천시체육회는 앞서 이번 영천시 민간 체육회장 선거(투표)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 위탁했다.

따라서 체육회는 25일 오전 선거운영위원회(7명)를 구성하고 본격

선거관리에 돌입했다. 앞서 영천시 선거관위는 지난 17일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사항 등 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문제는 민선2기 민간 영천시체육회장에 누가 나서나. 전국 체육 회장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영천시는 아직 열기가 없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분담금이 꼽힌다.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공탁금과 3000만원의 연회비는 물론 행사 격려금 등 많은 사비를 출연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다.

또 앞서 지난 9월 영천시체육회가 시민체전 추경 예산 10억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당하면서 불필요한 시위로 맞서는 사태를 겪으면서 인기가 급감한 것도 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 박봉규 회장은 연임에 확실하게 출사표를 던진 모양새, 박 회장은 지난 17일 영천시선거위 설명회에 후보자로는 유일하게 단독 참석해 안내 설명을 들으면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체육

회가 단독 입·후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친 대목이다.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박 회장은 "지금은 마땅히 타 후보자가 나서지 않고 있으나 상대 후보가 있다면 경선을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자천 타천으로 조영제 전 영천시의회 의장의 출마설이 솔솔 나온다. 지난 23일 지역 체육회 한 부회장은 "조영제 전 의장은 영천 출신이며 재력도 있고 영천시의회 의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지역 체육 현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출마를 권유해 보겠다"고 전했다.

또 조영제 전 의장도 25일 본지에 전화로 체육회장 선거 일정과 선거 방식 등을 문의해 오면서 현직 시체육회 부회장 출마설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민선2기 영천시체육회장 선거에 흑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

냐"는 본지의 노골적인 질문에 조 전 의장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주변에서 말들은 있지만 회장 추대라면 한 번 해볼 의향이 있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본지 질문을 피해갔다.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니어서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회장 선출은 현재 지역 약290여 명의 대의원 중 12월2일까지 선거인(대의원)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경기가맹단체의 장, 협회장, 읍·면·동체육회장, 시체육회 대의원 등이다.

지난 2019년 첫 민간체육회장 임기는 3년이지만 2회부터는 임기 4년이다. 이번 선거에 박봉규 회장의 연임이 성공할지 아니면 조영제 전 의장의 출사표가 현실화 할지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 (민주당)이태원 사고 윤석열 정부 퇴진 불쏘시개 정쟁 안 돼!

與 '국정조사 보이콧'...野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잠정 유보
 민주당, "이상민 해임 발의 여부와 시점, 지도부에 일임"
 국민의힘, "先예산안 처리 후 민주당 변화에 따라 결정"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1면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여야 모두 국정특위 보이콧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의를 잠정 유보했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정특위 보이콧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등 국민의힘 소식통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의힘)3선 이상(의원) 참석한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 후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민주당 조치 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국정특위 보이콧 결정을 유보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국정조사 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면서 국조에 앞서 먼저 이 장관 해임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실상 (민주당)합의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2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한발 물러났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책임은 국회

차원에서 묻기로 의견을 모아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 등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언론에 밝혔다.

매일경제 등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한 결과 여러 의견이 충돌하면서 발의 시기 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 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 장관에 책임을 묻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그 책임

을 묻는 형식, 시점은 원내지도부가 위임받았다"고 전했다.

이태원 사고 국정특위는 앞서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합의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특히 국정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우상호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도 "민주당은 국정특위 합의 전부터 이태원 사고를 윤석열 정부 퇴진 불쏘시개로 사용하려했던 것 같다"면서 즉각 이 장관의 파면을 철회하고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최근 정치적 발언이 갈수록 강경화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이를 두고 고성국 박사(정치평론가)는 "국힘 지도부가 좌파가 주도하는 민주당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특위 합의(파내자)하자 말자 다음 날 곧바로 특검을 주장하면서 또 이상민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미 예고된 민주당의 수순이다"면서 물렁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때문에 합의한 국정특위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이상민)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퇴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것은 당초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오히려 역 비판했다.

영천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버팀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혜택

- 공사 매도 농지에 대한 장기임대
- 농가경영 회복 후 환매권 보장

KRF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이철우 경북지사, 화물 집단운송 거부... 불법 무관용 강력 대처 지시

정부 업무개시명령-운영여부 확인... 불법 행위 철저 단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며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화물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29일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 명령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한편,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은 총 50여만대로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2만2천대로 4.3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북은 사업용 화물차량 총 5만여대중 화물연대가 3천2백여대로 6.43%를 차지하고, 이중 집단운송거부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총 7,080명(32%수준)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경북도는 분석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2개 지부 9개 지회 3천2백명(6.4%)정도가 산발적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영천은

대창면S-oil저유소 및 신녕면 한일시멘트등 2개소에서 29일 현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지역 사업장은 레미콘 및 철근등의 공급차질로 아파트,지방도,하천공사등 44개 건설현장 공사중단 및 철강제품 미출하로 787.5억원, 시멘트생산차질 22억원, 수출컨테이너 중단 및 출하물량 감소로 89억원, 기타 중소기업 물류비 상승 및 수출불가로 2.8억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8일 육상화

물운송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첫 회의를 주재하고, 건설·철강 분야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영여부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박한우 객원기자

경북, 내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탄력 받는다... 4개 기관·단체 업무 협약

경북도↔경북도의회↔농협중앙경북본부↔경북농업인단체협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지역 농협과 농업인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21일 도청회의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금명동),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한용호) 간 이같은 목적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 과 기부제도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개발과 기부편의 제고 ▷지역에서 생산·채취·제조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발굴·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권역별 설

명회, 시군 담당팀장 교육 및 전문강사 특강, 시군 담당자 합동 토론회, 벤치마킹,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팀 구성, 시군 과장회의, 조례제정,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에 힘이 되고,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경북 중소기업대상' 7개 기업 선정

종합대상에 칠곡군 왜관읍 (주)대원GSI(대표 서보성)
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일반 3억원→최대 5억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우선 지원



경북도가 위기 속에서도 경영 우수 성과를 낸 경북 지역 기업 7곳을 선정해 2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2년 경북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경북 중소기업대상'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으로 경북도가 199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난해 까지 296개 기업을 선정·시상해 왔다.

특히 올해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등 4개 부문에 25개사가 도전해 ▲종합대상에 칠

곡군 왜관읍 (주)대원GSI(대표 서보성) ▲경영혁신 부문에 구미시 시미동 (주)코마테크놀로지(대표 박성훈), ▲기술개발 부문 구미시 산동읍 브이엔에스(대표 배상용), ▲고용창출 부문 포항시 남구 (주)화일산기(대표 박의룡), ▲여성기업 성주군 월항면 (주)유일코프레이션(대표 이인숙), ▲우수상에 문경시 (주)클라임코리아(대표 홍주표)와 구미시 (주)태성전기(대표 신국수) 7개 기업이 각각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들 수상기업들은 “경북형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수상기업에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일반 3억원→최대 5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지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수상 기업들은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나눔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하고 “앞으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 되도록 경북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안전장치 없는 농기계 사고...경북도 2022년 한 해 사망 31명 부상 606명

10월에만 99건, 2명 사망
경운기 사고를 72.2% 가장 높아
크고 험령한 복장 주의 당부

농기계는 특별한 안전장치 없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2년 11월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는 686건 으로 이 중 사망 31명, 부상 60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에 연중 가장 많은 9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쳤다.

11월에도 6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상북도는 최근 농작물 탈곡, 이동 등 농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간 농기계 종류별 사고 발생률은 경운기가 72.2%(49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트랙터 15.9%(109건), SS기 4.1%(28건), 콤바인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험령한 복장이나 늘어지는 옷 피하기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경사로·좁은길 등 눈·발 출입 시 주변 안전확보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엄금 ▷교차로 신호 준수 ▷농기계 등화장치(반사판) 작동 ▷농기계 동승 금지 등 준수를 당부했다.

박한우 객원기자

[구미시] 도내 두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47억 들여 주민건강생활 지원
내년 1월 정식 운영 예정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2일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 약 47억원을 들여 경북도내 두번째로 건립됐다. 주민들에게 건강생활지원을 담당할 센터는 올 12월까지 임시

운영 후 전문상담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과 운영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 정식운영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민 요구와 참여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질환관련 사망률 등 실질적 건강지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JC특우회, 영천시 '제33차 우정의 날' 행사 성대하게 치뤘

최일호 행사 집행위원장 "코로나 벗어 난 완전 일상 돼야" 강종화 대회장 "경북 지구 특우회 화합 한마당 축제 되길" 신홍식 중앙회장 "그 동안의 갈등 잊고 화합하는 장 돼야"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JC강령-고비 마다 방향타 됐다" 이만희 의원 "경북JC 화합-지역 미래발전 원동력 될 것"



지난 20일 오후 영천생활체육관에서 열린 경북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화합 한마당, 사진 위 왼쪽부터 최일호 행사 집행위원장(영천JC특우회회장), 강종화 경북JC특우회회장, 신홍식 JC특우회 중앙회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은

경북지구JC특우회(회장 강종화) 제33차 우정의 날 행사가 20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경북지역 23개시군 대표 및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영천JC특우회(회장 최일호) 주관으로 화려하게 열렸다.

이번 경북 행사가 지역 영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경북지구회장(강종화)이 영천지역 인으로 통상적 의례 과정에 따른 것이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 만큼이나 오후 2시부터 준비해 초청가수 공

연 및 독도수호캠페인 식전 행사에 이어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 이날 '우정의 날' 행사는 경북지역 31개 회장을 포함해 타 지역 및 중앙회와 역대 회장, 영천시장, 경북도지사 등 내빈까지 입장 의식을 갖춰, JC특유의 입장식에만 50여분 이상이 걸리는 등 화려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 지역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시·도의원과 신홍식 JC특우회 중앙회장, 각 지역 JC회장·임원 등 500여명이 참석

해 오후 6시 이후 만찬으로 조직의 화합과 우정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일호 행사 집행위원장(영천

JC특우회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를 벗어나 다가 올 내일에 대한 완전 일상회복과 JC특우회의 동지의식"을 그리고 강종화

경북지구 회장의 대회는 "모처럼 일상 만남으로 바로 옆 회원들과의 스킨십으로 오늘 행사가 특우회 화합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JC야말로 자주·자발·자립적 실천력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려운 고비마다 방향타가 되었다"면서 선·후배 간 서로가 큰 울타리가되어가면서 지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영천-청도)국회의원은 "JC특우회 여러분이 지역 발전의 주역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경북 발전에 끊임 없이 노력하는 봉사 정신으로 더 큰 JC특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청도군, 매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화센터 준공

총 41억5천만원 사업비 투입

청도군(군수 김하수)과 매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정남수)는 지난 26일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일원에 조성된 매전문화센터에서 시설물

준공 축하와 매전면민 체육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청도군수 김하수, 국회의원 이만희, 군의장 김효태 등 여러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매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

해 작년 4월 토목·건축·조경 공사를 추진했다.

또 총 4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센터, 면민마당, 다목적쉼터, 안전안심거리 등의 기초생활거점 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 사업이다.



영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 최우수상

제도 개선·건의사항, 금호강 수질개선 효과 반영

영천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는 지난 25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제4회 경상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시는 제도 개선 방안 및 건의사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금호강 수질개선에 이바지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평가는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준수 여부 외 4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발표 내용의 적정성과 명확성의 정성평가 두 항목이다.

영천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왼쪽부터 환경보호과 박혜진 주무관, 최기문 영천시장, 홍경아 수계담당

낙동강을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말단 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해 하천수질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별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영천시는 2004년 1단계를 시점으로 현재 2030년까지 수질오염총량 4단계를 실시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99

만원

영천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영천 국회원

전문장례식장

고급수의/관/도우미/상복/장의버스/입관용품

(054) 331-4444

(영천영대병원 옆)



[고경초] 17~18일 교육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고경초등학교(교장 석장근)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고경교육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금호여중] 학교텃밭 활동 진행... 독거노인에게 나눔

금호여중(교장 박영남) 4-H 동아리 회원 26명은 지난 18일 학교 텃밭 마무리 활동을 진행했다.



[영천중] 학생 25명 독거노인 2가구 사랑의 연탄 배달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는 지난 26일 학생 25명이 학교 인근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800장을 배달했다.

봉사 활동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 내실화 사업을 연계한 것이다.

그럼으로 봉사활동 내실화 사업을 연계한 것이다. 봉사단원 12명과 봉사 희망 학생 13명이 참여해 800장의 연탄이 2가구에 나누어 배달됐다.

김효정 기자



[영동중] Wee클래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진행

영동중학교(교장 김영순)는 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22일 대구 극단 온누리의 뮤지컬 "친구야"를 학생들이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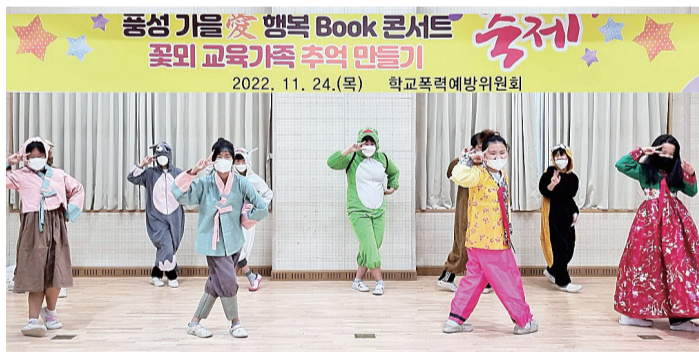
[성남여중] 문화체험 60여명 꽃꽂이 활동 '꽃보다 이쁜 너'

성남여자중학교(학교장 오상중)는 교내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교내학생회의실에서 지난 10일, 25일 2회에 걸쳐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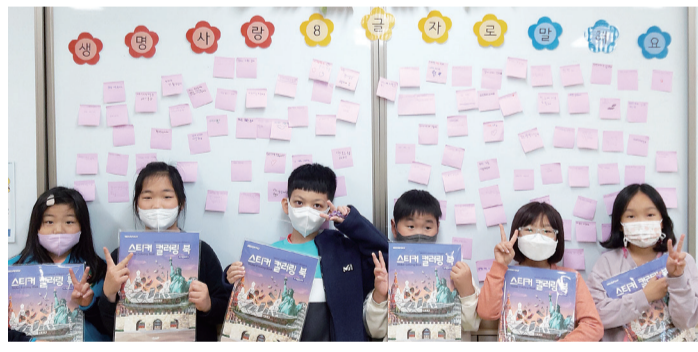
[경북영광학교] 올해 첫 문화공연 뮤지컬

경북영광학교(교장 강진순)는 지난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학습으로 신축된 체육관에서 뮤지컬 관람 시간을 가졌다.



[화산초] 전학년 참여하는 북콘서트와 미니 학예회

화산초등학교(교장 정호엽)는 지난 24일 본교 강당에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예방 북 콘서트 및 미니 학예회를 했다.



[포은초] 생명사랑 활동... 학급별 운영

포은초등학교(교장 심선자)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Wee클래스실에서 '2022학년도 생명사랑 Wee클래스 행사'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학생·선생님 월드컵 응원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교장 정미정)는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를 보며 월드컵 응원을 했다.



[영천전자고] (주)백두테크와 산학협력 MOU 체결

영천전자고등학교(교장 권철환)는 지난 23일 칠곡군 가산면에서 (주)백두테크(대표 김정희)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임고초] 1~3학년 31명, 시낭송가 초청 학생 창작 수업

임고초등학교(교장 강석중)는 지난 24일 본교 1~3학년 31명을 대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시낭송회를 열었다.



[자천초] 아라우카리아 식물로 미리 크리스마스 맞이

자천초등학교(교장 정순이)는 지난 24일 교육가족이 함께 미리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2번 버스 노선 변경 <동부사거리→영화교→완산지구→시장사거리 운행>

영천시, 11월부터 2번·6번 시내버스 일부 노선 조정

영천시는 내달 1일 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2번, 6번)을 조정(운행)한다.
 노선 조정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완산지구(미소지움 1·2단지, e편한세상) 거주 학생의 통학 개선, 폴리텍 대학 및 시민운동장 이용 활성화, 동부사거리~시청오거리~영동교~시장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노선 중복에 따른 분산이 목적이다.

2번 노선은 기존 동부사거리→시청오거리→영동교→시장사거리 운행 구간을 동부사거리→영화교→완산지구→시장사거리 운행으로 변경된다.
 6번 노선은 완산동 내 순환(완산지구↔영천초등학교) 운행에서 시내 순환(운동장→터미널→영천초→영천역→시장사거리→완산지구→영동교→시청→도서관→영천중→폴리텍 대학)으로 바뀐다.



신녕면, 주민자치 교양강좌 60점 작품전시 및 공연
 영천시 신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한진)는 29일 주민자치 교양강좌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열었다.



영천의 여성독립운동가 김정희 선생 애족장 추서
 제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영천에서 홀로 독립만세를 외친 김정희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영천시,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영천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열었다.



화산면 농가주부모임, 3일간 550포기 김장 나누기 행사
 영천시 화산면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숙자)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화산농협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다.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제27기 노인대학 졸업식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대학장 이육만)은 지난 25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제27기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영천, 금호읍 봉족리에 샤인머스켓(포도) 수출단지 준공
 경북 영천시에 샤인머스켓 포도 수출을 위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가 지난 22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확대 이후 다섯째 탄생 처음
 청통소재 정씨가 정 다섯째 16일 3.25kg 남아 출생

영천시는 지난 29일 청통면 한 가정에서 다섯 번째 아기가 태어나 가정을 방문해 탄생을 축하했다.
 정 씨네 가정은 기존에 3남 1녀를 두었고 지난 16일 3.25kg의 건강한 남아가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보건소와 국제 로타리 3630지구 영천 로타리클럽에서 준비한 출산 용품을 선물했다.
 또 5년 동안 출산·양육 장려금 1,900만원 지원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 정책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 자녀 이상 산모 보약 지원 등 다둥이 관련 혜택도 지원 받는다.



영천시보건소, 영천 로타리클럽 탄생세트로 출생아기 축하
 영천시는 지난 17일 국제 로타리 3630지구 영천 로타리클럽(회장 장종혁)으로부터 출생아기 축하 탄생세트 20세트(400만원 상당)를 영천시청 전정에서 기부 받아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새마을지도자영천시협의회,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영천시협의회(회장 이승원)는 24일 영천강변공원 일대에서 새마을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해 '2022 영천시 새마을 환경 살리기 및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영천시, 보건기관 종사자 등 응급처치 교육
 영천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9일 영천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영천국민체육센터, 공모 7년만에 기공식... 내년 12월 준공 목표

2016년 당초 공모 계획 보다 예산-시설 규모 두 배 늘려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되면 산 속에 나홀로 시설
연접사업 중단되면 센터 진입도로 개설 차질 불가피 전망

문체부공모사업인 국민체육센터가 영천시 야사동 산39-1번지에서 공모 7년 만에 24일 기공식이 열렸다. 총 사업비 140억원(기금 30억원, 시비110억원)으로 연면적 3,262㎡,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영천시는 이날 기공식을 갖고 지하 1층에는 공용주차장, 기계실을 비롯해 지상 1층에는 5레인(길이 25m) 규모의 워킹·유아풀을 갖춘 수영장과 샤워실, 탁의실 등이 설치되고, 지상 2층에는 사무실, 헬스장, GX룸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로 건립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위치가 도심지와 떨어진 외곽지 임야로 연접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될 경우 체육 시설은 산 속의 나홀로 시설이 될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국민체육센터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로 공모

직 후부터 건립 위치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논란이 많아왔다.

2016년 공모 당시 동부동사무소와 연계해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시 동부동사무소 건립이 흐지부지되면서 사업이 미뤄져 왔다.

예산도 공모 당시보다는 증가 됐다. 공모 후 2018년 70억원으로는 문광부 시설건립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영천시와 의회에서 동시에 나와 이를 변경해 당초 2000㎡에서 3262㎡로 면적을 늘리고 예산도 140억원(기금 30억원의 전액 시비)으로 두 배 증액시켰다.

주요시설은 기금을 받기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 및 다목적 체육관은 필수로 들어가고 불링장이 포함된 소도시 성장형 사업에서 소도시 특화형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이날 기공식을 가졌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 현 위치인 야사동 산39-1번지에 연접된 영천야사지구토지구획사업이 불법과 조함 내용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지구 내에 건립 예정이던 동부동사무소는 또 다시 기약이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공식을 가진 국민체육진흥센터는 내년 12월 준공을 하더라도 현 야사지구토지구획사업 성공 없이는 당분간 민가와 700m 이상 떨어진 산 속에 덩그러니 나홀로 시설이 될 전망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최기문 영천시

장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하는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제3회 노계 전국시낭송대회 대상-창원시 심필규씨

금상-광주시 송성근, 은상-이승현(창원)·어영순(양산) 올해부터 대상·금상 2명 시낭송가 인증서 발급

노계 박인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3회 노계박인로전국시낭송대회'가 지난 26일 노계문학관(영천시 북안면)에서 열린 가운데 경남 창원시 심필규씨가 시인이자 '아버지의눈물'을 낭송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반

과 대학생부로 나눠 예심 신청 접수 받은 결과 총87명이 접수해 이날 본선에 오른 27명이 경합을 벌여 모두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올해부터 상금과 시낭송가 인증서 및 상장 등이 주어졌다. 또 금상에는 김남주 시인의 '이가을에나는'을 낭송한 전남 광주시 송성근씨, 은상은 이승현(창원시)·어영순(양산시)가 각각 김윤재 시인의 바람의 등을 보았다와 유치환의 '세월'을 낭송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 총상금은 240만

원(7명)으로 대상 1명(100만원)과 금상 1명(50만원) 등 2명에는 상금 및 시낭송가 인증서, 상장이 주어졌고, 은상 2명(각30만원), 동상 3명(각10만원), 장려상 5명이 수상했다.

노계 박인로(1561~1642)는 송강정철(1536~1593), 고산윤선도(1586~1671)와 함께 우리나라 시가(詩歌)문학의 3대 작가로 평가 받고 있다. 조선조 가사문학(歌辭文學)으로 우뚝 선 공의 휘는 인로(仁老) 자는 덕옹(德翁) 호는 무하옹(無何翁)이며 노년에는 노계(蘆溪)로 불려졌다.

노계 관계자는 "통상 연말이 가



까워지면 전국 시낭송대회가 붓물을 이루면서 참가자가 분산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 노계 대회는 계절적 겹침을 피해 여름에 개최하면 더 많은 참가로 수준높은 대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계 박인로 선생의 시

낭송대회인 만큼 다음 대회부터는 상금도 높이고 노계의 시 중 1편을 의무 지정하는 한편 자유시 1편을 추가 제출받아 평가한다면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회가 될 것이다"며 대회 요강 변경 아이디어도 내놨다. 박한우 객원기자

영천의용소방대 회원 160명,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다짐

'2022년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 대거 참석

영천의용소방대(남,여) 회원 160명이 대형버스 4대로 지난 24일 칠곡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2년

하나되는 의용소방대 어울림 대축제'에 참석해 축제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하는 119'를 치켜 세웠다.

이날 축제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박승직 도의회 건설

소방위원장과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원, 지역 21개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천의용소방대원들은 이날 축제 슬로건을 배경으로 기술경연과 개인장비장착 800m 릴레이, 수관 불링, 등으로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펼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소방가족 상호간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의 행복은 안전을 기본으로 실현되는 만큼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경상북도 나라사랑한마음대회 개최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유공자 등 700여명 참가

경상북도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30일 '2022년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를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특수임무

수행자회 경북지부(지부장 이광희)에서 주관하고 유공자 표창, 군가공연, 의장대 시범,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 및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박한우 객원기자



[영천신문 캠페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천만들기"

영천시 어린이집 지원·관리 시스템 재정비 시급

보육교사 인사관리 난맥 드러나

영천시가 지역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지급할 수 없는 재원을 지원했다가 환수했는가 하면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난맥으로 교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린이집 지원·관리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영천시는 앞서 국·공립 및 법인 원장의 경우 사용자 직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천시가 보조금을 교부해 부당 지급 논란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시는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하고 지역 법인 및 어린이집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천만원의 기 지급 보험료를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퇴직한 원장 등 변동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부당 지급 보조금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후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시는 이들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관리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비 줄이려고 보육교사 호봉 낮춰 입사 시킨 법인 어린이집 긴급(승급)호봉 조정...보육교사 11월 인건비 보조금지원 차질 고용·산재보험 부당 지원한 영천시...보조금 환수1000만원↑↑ 호봉 낮춰 채용한 법인 어린이집...규정위반 행정처분 대상?

보육교직원 채용시 교직원의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호봉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말부터 긴급 호봉 재정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퇴직한 본지 제보 A교사는 입사 당시 13호봉이었으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1호봉으로 해야 입사가 가능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1호봉으로 낮추어 취업해 왔다고 했다.

본지 자료분석 결과 1호봉과 15호봉의 급여 차이는 월 67만원 정도다. 이를 5년간만 추정하더라도 원장은 약4000만원의 인건비를 이득 본 셈이다. 이같은 보육교사들의 수는 수 십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번 호봉 조정으로 영천시는 당장 보조금 지원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영천시가 보육

인건비 예산부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호봉 조정에 따른 후유증이다. 당장 이미 부당 이득을 취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문책과 호봉 상승으로 당장 직장에서 쫓겨나야할 교직원이다.

본지와 대화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호봉이 높은 교사를 우리(어린이집)가 채용할 수가 없다. 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해 호봉 수가 낮은 교사로 대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사 인건비 미지급과 관련해 경북도에서 내시 후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다"면서 그러나 "의회 추경전 성립으로 오늘(30일) 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들이 호봉을 의도적으로 하향 채용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다시 숙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12월 1일~22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례회

2023년도 영천시 예산안-2022년도 정리추경 심사, 시정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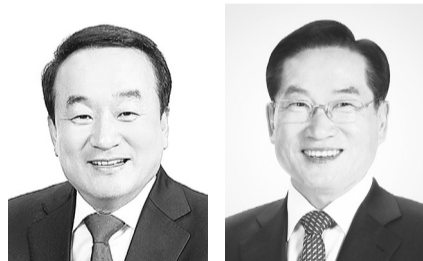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227회 영천시의회 올해 두 번째 정례회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영천시가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1조2234억원 규모의 영천시 2023년도 예산(안)심사를 비롯해 올해 정리추경 및 부의 안건(27건)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의사 일정별로는 ▲첫 날인 1일 개회식(제1차본회의)에서 회의일수 조정(연장),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 시정연설, 예결위를 구성(선임)한다.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이 기간 동안 상임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게 된다.

또 의회는 ▲16일 하루 동안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앞서 심사해 온 영천시 2023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이어 영천시로부터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영천시 올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태 시의회 의장 최기문 영천시장

위해 다시 휴회기간을 갖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처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친다.

이번 회기동안 영천시는 27건의 안건을 부의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노계문화관과 한의마을 관리운영 조례,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7건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해 신년 화두로 정했던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신념을 내세워 시민들과 약속한 자신의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 시장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유지전략을 천명하고 영천시민들

에게 협조를 당부. 특히 영천시의회에 제출한 1조223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도자료에 언급한대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영천사랑상품권 발행, 영천경마공원 및 지하철연장 등의 차질없는 진행을 강조하고, 인구증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부차 농촌 만들기, 노인복지 및 지역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등이다.

한편 영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2234억원 규모로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 34%, 농업·산업 등 경제분야 22%, 도로·교통 등 지역개발분야에 14%, 문화·관광·교육·안전 등 공공행정분야에 16%, 예비비 등에 14%를 편성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영천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영천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신심성 및 일회성 낭비가 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신중하게 심사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하 의장은 무분별한 보조금 사용의 난맥상을 방지해 한 톨이라도 더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도 부탁했다.

장지수 기자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경상북도 자동차 부품 미래 전기차 전환 MOU

경북 주도형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 탄력 경북도, 지역 자동차 부품사 성장 발판 마련 기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과 경북도가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전기차 전환을 위해 손을 잡으면서 지역 자동차 부품사 성장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0일 경주에서 재단과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 수퍼클러스터 조성, 경북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기업 발굴에 필요한 예산 및 사업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재단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퇴직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현대자동차 협력사업 연계 등에 주력한다.

또 재단은 자동차 부품산업 국제경쟁력을 위한 기반 구축, 품질 경영을 통한 부품산업 기초기반 조성, 완성차업체와 부품사 간 선진 협력체계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산업 상생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수퍼 클러스터 조성, 경상북도-자동차부품산업진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왼쪽)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및 미래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 현대차 그룹에서도 5조 20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 등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미래 자동차 전환 산업혁신 일자리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수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왔다.

따라서 도는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직접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국내 최대의 부품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농협(조합장 성영근),
올해 농·축협 윤리경영 최우수상 선정**



<사진은 2020년 성영근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 선임 축하(본지 DB자료)>

영천농협(조합장 성영근)이 청렴성 및 윤리경영 성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올해 농·축협 윤리경영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돼 12월1일 농협중앙회 강담에서 수상식을 갖는다.

농협중앙회 윤리경영대상은 매년 전국 118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청렴성 및 윤리경영으로 사회적 모범이 되는 농·축협에 주는 상이다.

성영근 조합장은 "평소 직원들이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근면하게 윤리경영을 실천해온 것이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계기가 되었다"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 조합장은 지난 2012년 영천농협조합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내리 3선으로 재임 중이다. 앞서 농협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20년 7월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 이사로 선출되는 등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으로 지난해에는 '대통령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자리 소담힐링연구소 대표**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22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을 비롯한 5급 이상 사무국 공무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자리 소담힐링연구소 대표를 초청 강사로 4대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 방법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의원들과 고위직 공무원

들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강이다.

하기태 의장은 "건전한 조직문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폭력 없는 시민사회 조성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 '민원인의 날' 운영...323번째 민원

**이만희, "가장 힘들때 민원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국회 입성 후 영천 민원 만
연평균 64.4건 접수-처리는 83%**

지역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이 국회 첫 등원 후 시작한 '민원인의 날' 운영 결과 지난 26일까지 모두 3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과 동시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정해 영천과 청도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왔다. 청도의 경우는 영천 민원의 절반 정도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오전 9시에는 영천시 금호읍 신월송길 K씨로부터 "5년 전부터 영천시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322번째로 이 의원을 찾아왔다.

또 이어 화산면 J씨도 "운수업관련 휴업을 하려는데 영천시가 집요하게 폐업을 요구해 부당하다"며 역시 민원을 제기해 323번째 민원이 됐다.

이들 민원의 경우 대부분 영천시와 관련 기관 및 주민들과의 문제로 해결하기가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이 의원이 국회 바쁜 일정에도 매주 지역에 내려와 지역민과 소통하고 지역민의 민원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은 민원인과 서로 애로사항을 나누며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의 어려움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일일이 민원인과 고충을 나누다 보면 공무원의 시정 어려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직접 저를 찾아와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국회의원의 역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민원 해결은 물론 사업과 정치 현안에 이르기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지역 민원인의 날을 운영으로 이 의원은 2016년 59건, 2017년 78건, 2018년 87건 등 연평균 64.4건으로 파악됐으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은 국회 일정관계로 연평균 20건으로 줄어든데 반해 민원 처리율은 83%로 분석됐다.

장지수 기자

**영천 장명희 氏
경북도 자원봉사대회 금상**



경상북도는 올해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영천 장명희(58세, 여)씨에게 금상을 시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장명희씨는 영천 보현라이온스 회장으로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 정서지원, 등·하굣길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과 복지시설 정기후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상북도 자원봉사대회는 30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김효정 기자

청도 유희리 주민편익시설 완공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5일 청도읍 유희리 590-19에서 주민숙원사업인 다목적 주민편익시설을 완공해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설 준공으로 다목적 교육장과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마련돼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해졌다. 김효정 기자



"나누면 기쁨 두 배"... 청도군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들

**"우리의 봉사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 행복합니다"**

청도군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구분순)는 지난 22일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 30명과 함께 김장 270포기를 담귀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 담그기 행사에 김하수 청도군수도 함께 직접 배추를 버무리면서 여성 회원들의 김장 담그기를 도왔다.

센터 회원들은 이번 김장 준비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날 까지 배추를 절이고 씻고 준비해 270포기를 담귀 9개 읍면별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의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안부도 묻고 김치를 배달했다고 센터 회원이 밝혔다.



구분순 회장은 "작은 나눔도 실천하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면서 "회원들과 함께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실화에 따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상 경감청구에 대한 특례 해부
실화로 인한 이웃집 피해발생의
과실정도가 핵심

문 저는 제 집과 담장 없이 벽체로 붙어 있는 이웃 甲의 집에 나무를 기대어 놓았는데, 그 밑에서 용접을 하다가 나무에 불이 붙어 甲의 집 일부를 태웠습니다.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도 위와 다르지 않다. 즉 실화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화자는 그 실화로 인해 직접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이 번져 연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만 있

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경과실만 있고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에 배상액에 대한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감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특히 실화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손해배상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상 경감청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연소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감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귀하의 사건을 보건대, 이웃인 甲의 집이 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귀하의 과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웃인 甲의 집이 탄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그 배상으로 귀하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시가대가 차액 30%(3억원)이상 증여세과세대상
부당하게 조세부담 감소 인정되면 부당 행위
비특수관계인간·비특수관계인간 거래 명확 필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따라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저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적인 거래금액으로 새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조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충족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여야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불특정 다

수인간에 거래되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사실은 인정하되 세금을 시가로 조정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는 매매 계약일이고 시가 평가기간은 계약일 전후 3개월 기간 중 상증법상 시가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현행 상증법 상에서는 특수관계인간 또는 비특수관계인간에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특수관계인일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일 경우, 비특수관계인일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급한 자금사정이나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하더라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저가양도시에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취득자금의 원천을 미리 준비하여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우종철 칼럼



우종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순국선열의 날’과 석주 이상룡

11월 17일은 국권 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 날은 치욕스러운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을사늑약의 역사적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독립투사들의 넋과 충성심을 기리는 날로 정하였다.

지난 좌파 정권 5년 동안 국가정체성은 무너졌고, 순국선열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지하에서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북한 김영남 앞에서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 했고, 2019년 6.25 전쟁 전범(戰犯) 중의 하나인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했다.

1961년 ‘원호청’ 출범 이후 60여 년 만에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추진을 환영한다. 윤 대통령도 “보훈이 안보요, 국가정체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보훈부는 좌파의 숙주 노릇을 한 친북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만드는 ‘체제수호’ 역할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간도의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1858~1932)이 지었는데, 1절을 보면 중국 대륙의 서북, 서남 전체가 한민족의 고토이자 활동 무대였음을 상기시킨다. 중국은 아직 어리석기에 단군의 자손인 우리가 업어 길렀고, 아직 문명에 눈 뜨지 못한 섬나라 일본은 젓 먹여 길렀다고 한다.

“서북으로 흑룡태원(산서성) 남의 영절(절강성)에/ 여러 만만 현원(軒輊, 한족 최초 임금) 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 섬 중 어린 것들(일본인) 품에다 품어, 젓 먹여 기른 이 뉘뇨/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조상들이라.”

이상룡·이회영·허위 선생의 가문은 자랑스러운 ‘항일운동 3대가문’으로 불리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다. 이상룡은 일제강점기의 거유(巨儒)요, 독립운동가다.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만초(萬初), 호는 석주이다. 안동시 임청각(臨淸閣)에서 이승묵(李承穆)과 부인 권씨 사이의 3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임청각은 1519년(중종 14)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낙향해 낙동강변에 지은 집으로,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시구를 빌려 이름 지었다. 고성이씨 대종택으로 석주를 비롯해 아들과 손자·며느리 등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10명을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석주는 퇴계 학통을 계승한 김흥락(金興洛)의 문하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본격적인 의병활동에 나섰다. 이후 혁신적 유림들과 함께 근대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계몽활동에 뛰어 들었다.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1월, 석주는 54세에 조상의 신위와 위패를 땅에 묻었다. 그리고 전답과 99칸짜리 집을 모두 처분한 후 가솔과 친척을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석주는 이회영, 이시영과 함께 간도에서 독립군 기지 개척에 힘썼으며, 신흥무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무장독립투쟁을 위한 독립군 양성에 전념했다. 1919년 4월, 군정기관으로 조직된 서로군정서에서 독판(최고 대표)에 선임되었다.

1925년 9월, 석주는 임정 초대 국무령에 추대되어 여러 분파로 갈린 독립운동계의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1932년 5월, 석주는 태평성세가 되면 돌아가리라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길림성에서 74세로 순국했다. “독립이 되기 전에는 내 시신을 고국에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30년 후 정부는 석주에게 건국훈장독립장을 추서했고, 1990년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 임정요인 묘역에 안장했다. 평생을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한 선비. 나라 잃은 지도층의 의무를 오롯이 보여준 석주 선생의 장엄한 생애를 경모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취종양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취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취영천신문)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대구 군부대이전은
호국보훈의 도시 영천으로



영천시 교촌동 마원신의 충혼탑
2022. 11. 23. 본지 애독자



자본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영천신문의 정론직필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영천신문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천신문 후원 애독자 일동-

영천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